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

2026. 3. 3.(화) 10시

“재외동포의 의미와 가치, 초등 교과서에 실린다”

-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교과서에 ‘재외동포와 함께 통일로 걸어요’ 수록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(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)
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2026년부터 사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국정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이 수록됐다고 밝혔다.
 - 해당 내용은 『5. 통일 한반도의 어느 날』 단원에 “재외동포와 함께 통일로 걸어요”라는 제목의 읽기 자료 형태로 반영되었으며(p.85), 재외동포의 개념과 현황*, 역할을 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소개하고 있다.
 - * 전 세계 181개국 7,006,703명 (이와 별도로 약 864,000명의 동포가 국내 거주)
 - ※ 붙임 ‘교과서 수록 페이지’ 참조
 - 교과서에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중한 일원으로서, 우리나라와 거주국 간 우호·교류 증진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통일을 함께 준비하는 동반자라는 점이 담겼다.
- 이번 교과서 수록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수준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.
 - 재외동포청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및 포용적 시각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보고, 개청 이후부터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의 교과서 반영을 위해 교육부, 학계 인사, 교사,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.

○ 또한 ‘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*’을 초·중·고교와 대학 등에서 진행하고 있으며, 지난해에는 국가인재원과 협업해 공무원 대상 이러닝 콘텐츠 『재외동포의 이해와 모국기여』도 개발했다.

*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재외동포 관련 전문강사(홍보대사, 작가, 교수, 동포청 직원 등)를 파견하여 특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

□ 김경협 청장은 “학교 현장에서의 재외동포 이해교육은 미래 세대가 대한민국 공동체를 더 넓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”이라며, “금번 재외동포 내용의 교과서 수록 및 이해교육 시행을 통해 학생들이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동반자로 인식하고, 다양성과 연대를 존중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.”고 말했다.

□ 재외동포청은 다음 교육과정 개정 시, ‘교육과정 총론’과 ‘성취기준’ 등에 ‘재외동포 관련 내용’이 반영되어, 국내 초·중·고 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가 추가로 수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.

붙임 : 수록 내용(초등학교 6학년 도덕교과서 p.85) 1부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	책임자	과 장	곽삼주 (032-585-3154)
		담당자	서기관	이명재 (032-585-3158)
			주무관	장현석 (032-585-3157)

생각 놀이터

재외동포와 함께 통일로 걸어요

여러분, 재외동포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나요? 해외에 사는 우리 민족을 재외동포라고 합니다.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사는 사람(재외국민)과 외국 국적이라도 과거에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나 그 후손(외국국적동포 및 무국적동포)을 모두 재외동포라고 합니다.



출처: 『2025 재외동포 현황』(재외동포청, 2025. 12.)

재외동포는 우리나라와 세계를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오래전부터 재외동포들은 거주국에 우리 문화를 소개해 왔고, 이를 밑거름으로 오늘날의 케이팝, 케이드라마, 케이푸드 등의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었습니다. 또 대한민국과 거주국 간 *우호·교류 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축구, 야구 등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 국제대회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는 재외동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.

이렇게 재외동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해 왔습니다. 우리 모두 통일의 꿈을 이루는 날까지 재외동포들과 함께 힘을 내 보아요!

*우호: 개인끼리 나라끼리 서로 사이가 좋음.

